

IT산업 수출입 동향



우성재
KEA R&D Center
그림장/수석연구원

2008년 IT수출은 반도체 부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중심으로 전년 수준의 1,313억 달러(0.9%증가)로 잠정 집계되었고 IT수입은 7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5.5%증가하였으며, IT수지는 전체산업의 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578억 달러 흑자를 기록

특히, 3대 IT 품목 중 휴대폰은 선진시장의 교체수요와 신흥시장에서의 중저가폰 판매호조로 반도체를 제치고 우리나라 IT 수출품목 1위로 올랐으나, 반도체는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의 지속으로 '01년 이후 7년만에 역성장 하였음

2008년 9월까지의 IT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10월 들어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IT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 등 어려운 대외여건으로 수출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였고, 2008년 12월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선진 및 신흥시장의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프린터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부진을 보여 전년 동월대비 38.2% 감소한 66억 달러에 그침

한편, 축전지, PCB 등은 IT 수출의 틈새 품목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신흥시장인 중동(16.3%), 중남미(15.9%) 수출이 두자리수 증가를 보임

'09년 IT산업 수출은 미국 등 해외 경기 침체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휴대폰, 반도체, 패널 등은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품목으로 IT 수출둔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시장지

배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① 휴대폰(부분품 포함) : 334.5억달러 수출, 전년 대비 19.1% 증가

- 선진시장(북미, EU)에서의 프리미엄폰(3G) 교체수요 확대와 신흥시장에서의 중저가폰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반도체를 제치고 수출 1위 품목에 등극

- (지역별) 對중국(홍콩 포함, 92.8억 달러, 26.9%) 부분품 수출 주도, 미국(84.1억달러, 52.1%), EU(80.3억 달러, 2.0%) 등 선진시장은 프리미엄 제품의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냄

- 한편, 남미(18.5억달러, 8.2%), 중동(6.9억달러, 5.5%), 인도(7.7억달러, 11.3%) 등 신흥시장 수출도 증가

【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

(단위 : 억달러, % : 전년 대비)

구분	'08.1	2	3	4	5	6	7	8	9	10	11	12	1-12
금액	28.0	23.4	30.4	29.9	28.1	27.1	29.5	27.8	32.5	37.6	24.0	16.3	334.5
(증감률)	(29.7)	(20.3)	(48.0)	(43.0)	(38.4)	(20.2)	(21.8)	(20.2)	(39.6)	(13.6)	(Δ25.4)	(Δ17.4)	(19.1)

② 반도체 : 328.0억달러 수출, 전년 대비 16.0% 감소

- D램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과 업계의 감산, 투자축소 등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위축으로 가격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21.3% 감소한 97.4억 달러를 기록

- 한편, 낸드플래시는 스마트폰, SSD(Solid State

Drive), 메모리카드 등 전방산업의 시장 정체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급락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4.5% 감소한 24.2억 달러 기록

- (지역별) 중국(홍콩포함, 140억 달러, △9.8%), 일본(35.8억 달러, △19.7%), EU(22.2억 달러, △25.0%), 미국(25.1억 달러, △24.4%) 모두 감소

【 반도체 수출 추이 】

(단위 : 억달러, % : 전년대비)

구분	'08.1	2	3	4	5	6	7	8	9	10	11	12	1-12
반도체	28.2 (△21.5)	25.8 (△16.4)	29.4 (△8.2)	28.6 (△0.1)	30.9 (5.6)	32.7 (2.3)	32.0 (△5.9)	31.0 (△12.9)	29.4 (△10.5)	25.2 (△26.1)	19.5 (△44.0)	15.3 (△49.8)	328.0 (△16.0)
메모리	14.1 (△37.0)	13.7 (△28.5)	15.8 (△12.4)	15.7 (△2.4)	17.1 (3.6)	17.5 (△6.0)	17.3 (△13.0)	16.8 (△21.0)	14.5 (△24.2)	11.4 (△39.5)	9.1 (△50.3)	7.3 (△53.5)	170.3 (△23.9)
D램	6.9 (△58.5)	7.1 (△46.6)	8.4 (△27.8)	8.5 (△12.1)	9.6 (4.6)	10.4 (6.2)	10.8 (1.9)	10.9 (△2.0)	8.5 (△8.0)	6.2 (△23.8)	5.1 (△31.7)	4.9 (△28.8)	97.4 (△21.3)
낸드	2.8 (30.2)	2.7 (52.3)	2.3 (38.7)	2.3 (31.4)	2.5 (19.9)	2.4 (△15.1)	2.3 (△26.4)	2.0 (△47.8)	1.7 (△47.3)	1.3 (△56.0)	1.1 (△66.4)	0.8 (△76.4)	24.2 (△24.5)

* 메모리반도체에 메모리 MCP 포함

③ 패널(부분품 포함) : 257.2억달러 수출, 전년대비 19.2%

- Full HD 등 평판TV와 대형 모니터용 패널 수요증가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수출에서 선전

* TFT-LCD(TV용, 106.7cm, 달러) : ('08.1) 543 → (3) 535 → (7) 480 → (12) 325

- (지역별) 중국(홍콩포함, 26.6%), EU(30.2%), 멕시코(47.3%), 브라질(71.2%), 폴란드(48.6%), 슬로바키아(141.2%) 등 주요 생산거점에서의 수출이 증가

【 패널 수출 추이 】

(단위 : 억달러, % : 전년대비)

구분	'08.1	2	3	4	5	6	7	8	9	10	11	12	1-12
금액	20.9	19.7	22.3	22.2	22.8	21.6	23.8	23.6	25.3	24.1	18.6	12.5	257.2
(증감률)	(54.2)	(50.0)	(35.1)	(49.0)	(34.1)	(39.7)	(31.3)	(15.4)	(27.5)	(3.7)	(△18.3)	(△40.4)	(19.2)

④ 칼라 TV(부분품 포함) : 58.4억달러 수출, 전년대비 3.7% 감소

- TV가격 하락*과 EU 등 주요 소비시장의 경기부진 영향으로 해외생산을 위한 TV부분품(47.8억 달러, △4.0%) 수출이 둔화되면서 TV 수출이 감소

* LCDTV가격(106.7cm, 달러) : ('08.1)1,361 → (3)1,365 → (7)1,263 → (12)1,042

-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 28.2%), 헝가리(50.5%), 인도(11.4%) 브라질(44.8%) 증가, 멕시코(△11.8%), 폴란드(△8.6%) 감소

【 칼라TV(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

(단위 : 억달러, % : 전년대비)

구분	'08.1	2	3	4	5	6	7	8	9	10	11	12	1-12
칼라TV	5.5 (39.1)	5.6 (26.2)	6.1 (16.1)	5.9 (27.1)	5.3 (32.5)	5.3 (34.7)	5.5 (13.1)	4.9 (△20.9)	5.5 (1.6)	4.4 (△36.8)	2.3 (△59.9)	2.1 (△60.2)	58.4 (△3.7)
부분품 포함	0.5 (58.7)	0.5 (24.4)	0.6 (5.8)	0.6 (25.9)	0.7 (58.7)	0.5 (7.1)	0.7 (27.3)	0.5 (△23.7)	0.6 (23.4)	0.5 (△24.9)	0.5 (△9.8)	0.3 (△47.4)	6.4 (△6.0)
LCD TV	0.2 (△9.3)	0.2 (23.7)	0.3 (37.1)	0.3 (44.4)	0.3 (61.9)	0.4 (40.2)	0.3 (15.7)	0.3 (△25.4)	0.3 (△6.4)	0.3 (△34.7)	0.2 (△48.0)	0.2 (△39.5)	3.2 (△1.5)
PDP TV	4.7 (44.5)	4.8 (29.4)	5.1 (19.6)	5.0 (28.8)	4.3 (30.6)	4.4 (41.3)	4.4 (12.1)	4.1 (△19.6)	4.5 (0.6)	3.6 (△38.9)	1.7 (△66.0)	1.65 (△64.2)	47.8 (△4.0)

④ 기타

전기장비(44.2억달러, 26.2%)는 축전지(28.5억달러, 36.5%)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접속부품(33.0억 달러, 16.2%)도 PCB(22.3억달러, 15.2%)를 중심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프린터(9.4억달러, 16.8%)는 미국, EU 등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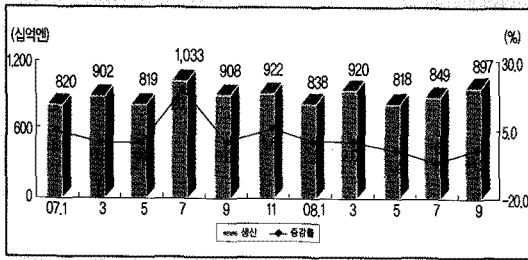
일본 IT 부품 · 소재 산업 시장 동향

■ 생산 동향

'08년 9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2% 감소한 9천 억엔을 기록하였다.

기타부품(-14.0%)이 가장 큰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다음은 수동부품(-8.6%) 순임. 반면에, PCB(5.2%), 변환부품(1.9%), 기구부품(0.8%), 반도체소자(5.7%), 디스플레이(13.8%)는 플러스 성장을 시현했다.

일본 IT 부품 · 소재 월별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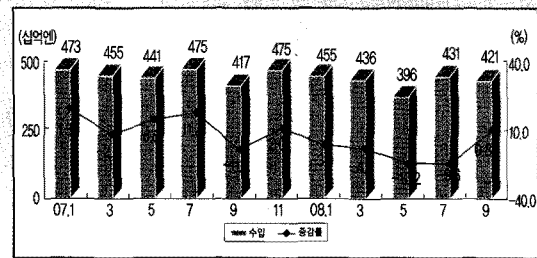


■ 수입 동향

'08년 9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한 4천 2백억엔을 기록하였다.

기구부품(15.5%)이 가장 큰폭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다음은 반도체소자(14.7%), 기기부분품(5.1%), 변환부품(0.7%), PCB(0.1%) 순임. 반면에, 기타부품(-20.5%), 수동부품(-4.2%), 디스플레이(-2.1%)는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했다.

일본 IT 부품 · 소재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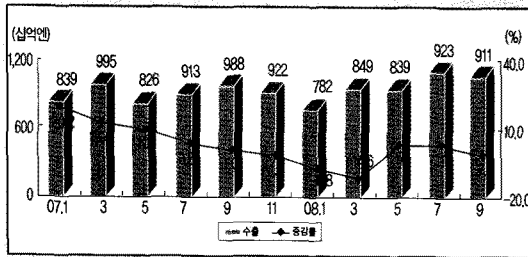


■ 수출 동향

'08년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8% 감소한 9천 억엔을 기록하였다.

수동부품(-17.4%)이 가장 큰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다음은 변환부품(-11.1%), PCB(-9.5%), 기타부품(-8.3%), 기구부품(-6.9%), 기기부분품(-6.6%), 디스플레이(-5.6%), 반도체소자(-0.5%) 순임

일본 IT 부품 · 소재 월별 수출 추이



■ 내수 동향

'08년 9월 내수는 전년동월대비 14.6% 증가한 4천6십억엔을 기록하였다.

반도체소자(34.0%)가 가장 큰폭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다음은 기구부품(24.0%), 디스플레이(13.1%), PCB(12.6%), 수동부품(8.7%), 변환부품(5.9%) 순임. 반면에, 기타부품(-14.9%), IC(-6.1%)는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했다.

일본 IT 부품 · 소재 내수 추이

